

광양시청 볼링팀 5명 태극마크

최복음·박종우·유지훈 등 영예
이춘수감독 AG출전 대표팀 발탁

‘6명 중 무려 5명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양시청 볼링팀의 최근 성적표다. 이춘수 감독(52)이 이끄는 ‘전하무적’ 광양시청 볼링팀이 다시한번 국내 남자 볼링계를 뒤흔들었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최근 성남 탄천볼링장과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끝난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 1인자’ 최복음(27)을 비롯해 박종우(23)·유지훈(23)·정원호(29)·황동준(22) 등 5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

따라서, 차인호를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된 광양시청 볼링팀은 창단 처음으로 총 5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전국 14개 실업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한팀에서 무려 5명이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려 대위업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복음·박종우·유지훈은 내달 15일까지 계속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대표(8명 선발)를 위해 현재 비지땀을 쏟고 있

다. 이춘수 감독은 최소 2명은 최종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

광양시청 볼링팀의 이런 무더기 국가대표 선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성적표가 여실히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팀의 간판스타인 최복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1인자다.

최복음은 2008년 세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개인종합, 3인조전)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도 3관왕(마스터즈, 3인조, 5인조)에 등극했다.

따라서 아시아무대를 넘어 세계무대까지 석권한 최복음에게 국내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셈이다.

박종우 역시 2013년 동아시아게임 3관왕(2인조, 3인조전, 5인조전)에 빛난다.

2013년 세계대회 5인조전에서는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유지훈도 그동안 태극마크 경험이 없는 등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하지



광양시청 볼링팀은 최근 성남 탄천볼링장과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끝난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복음·박종우·유지훈·정원호·황동준 등 5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

만, 선발전 9위를 차지할만큼 ‘비밀병기’로 통한다.

여기에 정원호, 황동준도 국내무대에서만큼은 자신의 진가를 서서히 발휘해가는 터였다.

2013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1~2개 획득은 기본이었다.

이와같이 태극마크로 전국 남자 볼링계를 섭렵한 광양시청 볼링팀의 진가는 시·도 자존심이 내걸린 전국체육대회에서 더욱 기세가 등등하다.

2009년 90체전 금메달 5개를 비롯하여 2010년 91체전 금2·은1·동2개, 2011년 92체전 금2·은1·동1개, 2012년 93체전 금1·동1개, 2013년 94체전 금3개 획득 등이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90체전에서 볼링 5개 전종별 석권은 전무후무한 대기록으로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이춘수 감독 역시 현재 국가대표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춘수 감독은 “우수선수들이 득

실거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개 팀의 6명 중 5명이 1차 선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선발전에서 3명 모두가 선발되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양시청 볼링팀의 독주 행보가 그야말로 거침이 없어 보인다.

/고광민 기자

광양시청

광양시청 볼링팀, 최강 실력 과시

최복음·박종우·유지훈 대표 최종선발전 출전

전남 광양시청 볼링팀(사진)이 전국 최강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최근 성남 탄천볼링장과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끝난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 1인자’ 최복음을 비롯해 박종우, 유지훈, 정원호, 황동준 등 5명이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 뽑혔다.

차인호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 광양시청 볼링팀이 전국 14개 실업팀과 경쟁해 22명을 뽑는 1차 국가대표 선발에 5명을 배출한 것.

이중 최복음, 박종우, 유지훈은 오는 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대표(8명 선발)를 위해 현재 비지땀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성적표는 광양시청 볼링팀의 이런 무더기 국가대표 선발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선 팀의 간판스타인 최복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1인자다.

최복음은 2008년 세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개인종합, 3인조전)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도 3관왕(마스



터즈, 3인조, 5인조)에 등극했다.

박종우 역시 2013년 동아시아게임 3관왕(2인조, 3인조전, 5인조전)에 빛나고 유지훈은 그동안 태극마크 경험이 없지만 선발전 9위를 차지할만큼 ‘비밀병기’로 통한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다메달을 획득했다.

2009년 90체전 금메달 5개를 비롯해 2010년 91체전 금 2·은 1·동 2, 2011년 92체전 금 2·은 1·동 1, 2012년 93체전 금 1·동 1, 2013년 94체전 금 3 획득 등 최강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90체전에서는 볼링 5개 전

종별 석권은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바 있다.

여기에 이춘수 감독 역시 현재 국가대표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춘수 감독은 “우수선수들이 득실거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개 팀의 6명 중 5명이 1차 선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선발전에서 3명 모두가 선발되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그 감독에 그 선수’ 광양시청 볼링 명불허전

국가대표 조련 이춘수 감독...최복음·박종우·유지훈·정원호·황동준 ‘태극마크’ 경사

인천AG 출전 목표 구슬땀

이춘수 감독(52)이 이끌고 있는 광양시청 볼링팀에서 5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성남 탄천볼링장과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열린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복음을 비롯해 박종우, 유지훈, 정원호, 황동준 등 광양시청 볼링 선수 5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선발된 5명을 비롯해 차인호까지 6명 중에 5명이 선발되는 쾌거를 안았다.

총 22명의 국가대표 중 다음달 15일까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대표(8명 선발)를 가린다.

특히 광양시청팀의 간판스타인 최복음(27)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1인자다.

최복음은 2008년 세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개인종합, 3인조전)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도 3관왕(마스터즈, 3인조, 5인조)에 등극했다.



김광욱 황동준 박종우 이춘수 감독 정원호 최복음 유지훈 (왼쪽부터)

즈, 3인조, 5인조)에 등극했다.

박종우(23) 역시 2013년 동아시아게임 3관왕(2인조, 3인조전, 5인조전)에 빛난다. 2013년 세계대회 5인조전에서는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유지훈(23)도 그동안 태극마크를 단적이 없고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하지만 선발전 9위를 차지할 만큼 실력은 뛰어나다.

여기에 정원호(29), 황동준(22)도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

다.

광양시청 이춘수 감독 역시 현재 국가대표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춘수 감독은 “우수한 선수들이 넘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개 팀의 6명 중 5명이 1차 선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최종 선발전에서 모두가 선발돼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genius@kdaily.com

광주일보

전남 체육꿈나무들에 1억1680만원 장학금

대한체육회 91명 선발

전남 체육꿈나무들에게 1억168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전남지역의 체육장학생 20명(초등부 5명·중등부 7명·고등부 8명),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71명(초등부 12명·중등부 24명·고등부 35명) 등 총 91명을 선발했다.

체육장학생의 경우 1인당 초등부 30만원, 중등부 50만원, 고등부 100만원을 받게 되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

된다. 이에 따라 전남에는 체육장학생 장학금 13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장학금 7100만원 등 총 8400만원의 장학금이 배분된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금을 받을 장학생도 확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최근 2014년도 ‘전라남도체육회 장학생’ 65명(초 26, 중 19, 고 15, 대학생 5명)에게 328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승마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권만준(금성고 2년), 역도 2관왕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등이 장학생에 선발됐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금은 2008년부터 우수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2013년 말 기준 14억286만원이 모금됐다.

최근 3년 동안 227명에 1억1200만원(초등부 30만원·중등부 50만원·고등부 70만원·대학부 100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갔다. 2014년도 장학금은 오는 2월 전라남도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지급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양시청